



죽세공

竹細工

歴史と特色

古くから竹の軽く、強い特色を生かして、ザル、かごなどの日常生活品から武具、楽器、高級調度品などまで幅広く県内各地で作られ、竹工芸品は生活の中に密着してきた。特に、中世以降、茶道、華道が盛んとなり、花生、茶杓などの竹工芸品が賞賛されたことから、加賀藩においても美術工芸として振興に力をいれ、藩の細工所では数人の竹工がいたと言われている。

しかし、第2次大戦後、プラスチック製品やダンボールが大量に出回り、需要が激減した。現在、網代編を主体とした高度な紋様編で茶道具等が作られている。

역사와 특색

예로부터 대나무의 가볍고 단단한 특성을 살려, 소쿠리, 바구니 등의 생활용품에서부터 무기, 악기, 고급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다. 중세 이후, 다도, 꽃꽂이가 성행하면서 꽃꽂이, 가루차 숟가락 등 대나무 공예품이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는 아지로 엮음을 중심으로 한 고도한 문양을 짜 엮은 차도구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花生(꽃꽂이)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榎本千冬(에노모토 지후유) 〒920-1122 金沢市湯涌荒屋町1-190(가나자와시 유타쿠아라야마치 1-190) TEL (076) 235-1114 本江和美(모토에 가즈미) 〒929-0111 能美市吉原町チ21-1(노미시 요시하라마치 지 21-1) TEL (0761) 55-5009



다도가마

茶の湯釜

歴史と特色

天正9年(1581年)加賀藩主前田利家の招きで能登中居の鋳物師宮崎彦九郎義綱が金沢に移住し、武具の鑄造を行った。その子義一は、茶道の造詣深い5代藩主綱紀に仕え、茶道奉行として京都より招かれた千仙叟宗室の指導のもと鑄造技術を生かして藩御用釜師となり、幾多の名作を作った。

義一は、仙叟より寒雉菴号を受け、加賀茶の湯釜の創始者となり、以後代々襲命し、現在、13代寒雉氏が伝統の技術を守り、裏千家釜師として製作を続けている。

茶の湯釜には、風炉用と炉用があり、種類も30~50種以上もあるが、時代とともに新しい型が生まれている。原料には、和鉄(昔のナベ、釜等のつづし)を使用している。

역사와 특색

미야자키 요시카즈가 센쇼소스시쓰의 지도 하에, 5 대 번주의 보호를 받으며 다도가마를 만들었다. 이후 대대로 이름을 계승해 현재 13대가 우라센케 가마장인으로 제작을 계속하고 있다. 다도가마는 종류가 30~50가지나 되며, 옛 도구를 재활용한 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茶の湯釜(다도가마)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宮崎寒雉(미야자키 간지) 〒920-0901 金沢市彦三町1丁目13-30(가나자와시 히코소마치 1-13-30) TEL (076) 231-5013